

### 조선이공대 동문들, 10억원 릴레이기부 캠페인



조선이공대학교가 동문들의 잇따른 발전기금 기탁을 계기로 복합문화역사관 건립을 위한 10억원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나섰다.

조선이공대(총장 조순계·가운데)는 지난 31일 대학 강당에서 (좌)국민산업 윤종식(총동창회장) 대표와 (우)부른전기 나일도(총동창회 부회장) 대표로부터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대학발전기금과 대학 총동창회로부터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받았다. <사진> 조선이공대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총동창회와 동문 등을 통해 앞으로 10억

원 가량의 릴레이 기부를 받을 예정이다.

조선이공대 조순계 총장은 "대학과 후배들을 위한 귀한 도움의 손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받은 기금을 활용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이공대 윤종식 총동창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 대학의 발전과 후배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이숙중 작가, '1억 상금' 목포문학상 장편소설 당선

시 오정순·희곡 박소연  
문학평론 강도희 수상

이숙중(64·사진) 작가가 목포문학상 장편소설 부문에 당선돼 1억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목포시는 지난 31일 목포문학상 당선작을 발표했다.

단일 부문 국내 최대상금 1억원인 장편소설 부문에서 이 작가의 '보트 하우스'가 영예를 안았다. 시 부문에는 '동호 덕 할머니 손가락엔 구구단 이 산다'(오정순·64), 희곡 부문에는 '행진곡'(박소연·58), 문학평론 부문에는 '돌봄의 위기 속에서 문학이 윤리를 말할 때'(강도희·27)가 선정됐다. 상금은 각 1000만원이다.

문학상은 문학을 주제로 오는 10월 7일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목포문학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문학과 해외 6개국(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캄보디아) 교민 등 총 1136명이 3728편을 응모해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숙중 작가는 "미국 허드슨강가의 별장인 보트 하우스에 모인 사람들의 불, 물, 꿈, 영혼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양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우)문학과 지성사는 장편소설 수상작 '보트 하우스'를 문학박람회 기간에 맞춰 단행본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우)문학과 지성사는 최종 당선작 발표와 함께 목포지역 소외 계층 문학 꿈나무를 위해 출판 도서 605권을 시에 기증하기도 했다.

목포문학상 시상식은 목포문학박람회 기간인 지난 30일 오후 10월 9일 목포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열린다.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를 슬로건으로 10월 7~10일 개최된다. 목포문학관, 목원동 일대, 평화광장 등지에서 4인4색문학제, 골목길 문학관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 인사

- ◆국세청
  - 행정사무관 승진 ▲광주지방국세청 염상열 ▲광주지방국세청 이용혁 ▲광주지방국세청 함태진 ▲광주지방국세청 조호형 ▲광주지방국세청 기연희 ▲광주지방국세청 백용교 ▲광주세무서 노정은 ▲북광주세무서 강용구 ▲서광주세무서 김봉재 ▲광산세무서 김정환 ▲익산세무서 정명수 ▲정읍세무서 이시형
- ◆순천시
  - 4급 승진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 5급 승진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 5급 승진의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파견 신은숙 ▲맑은물행정과장 직무대리 하영철
- ◆여수광양항만공사
  - 2급(부장) 승진 ▲사회기차역신실 권석록 ▲경영지원부 승진
  - 3급(차장) 승진 ▲재무회계부 김민규 ▲디지털정보실 김병환 ▲감사실 권귀하 ▲안전보안실 탁한수
  - 4급(과장) 승진 ▲감사실 최진혁·배수현 ▲기획조정실 최이현 ▲물류전략실 박여진 ▲디지털정보실 구광림 ▲물류단지부 김정은 ▲마케팅부 박지훈 ▲안전보안실 조운석 ▲항만건설부 임상현
- ◆조선대
  - ▲부총장 겸 교육혁신원장 조훈(공과대학 교수)
  - ▲대학원장 정진철(경상대학 교수) ▲대학연구윤리원장 임용(의과대학 교수) ▲교무처장 김종경(미술체육대학 교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최한철(치과대학 교수) ▲입학처장 이상우(글로벌인문대학 교수) ▲치과대학장 국중기(치과대학 교수) ▲미래사회융합대학장 겸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장 김복희(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교수) ▲중앙도서관장 임성철(의과대학 교수) ▲창업지원단장 황석승(IT융합대학 교수) ▲창업지원단 부단장 김호중(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부교수)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장 강성호(경상대학 부교수)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장 박형준(공과대학 교수)
- ◆호남대
  - ▲사회경영대학장 이영민 ▲AI융합대학장 겸 AI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정영기 ▲링크사업단장 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양승학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겸 비교과통합지원센터장 김진강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바다가꿈' 캠페인

### 진도 모사어촌계, 마을 해변 해양쓰레기 500kg 수거



진도 모사어촌계(곽병욱 어촌계장) 계원과 주민 20여명이 지난 26일 모사마을 해변에 있는 해양쓰레기 치우는 '바다가꿈 캠페인'을 가졌다. 올해 2022년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 참여한 모사어촌계는 이날 모두 500kg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 장흥 이회진어촌계, 인근 해안 환경 정화 활동



장흥 이회진어촌계(어촌계장 강신환) 회원 20여 명이 최근 인근 해안의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바다가꿈 행사'를 개최했다. 2021년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 참가한 이회진어촌계는 전남어촌특화사업인 '바다'를 통해 도시민과의 직거래, 6차 산업화를 통해 가공식품 '바다김' 그대로 김국' 공동 생산 등을 추진 중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10 SBS 뉴스 30 추석맞이 선물박람회 -한나! 우수중소기업농특산물
[11]	00 2020 도쿄 패럴림픽 50 1020, KBS를 말한다 55 UHD 스포터	00 노래가 좋아(재)	30 푸리가 식사교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재)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50 SBS 도쿄 패럴림픽 하이라이트
[1]	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영상앨범 산 30 2020 도쿄 패럴림픽	2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팡팡 다이노 45 반짝반짝 달남이		50 2020 도쿄패럴림픽	00 뉴스브리핑
[3]	00 시청자주간 특집 감사 음악회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 2(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박미선과 돈위리 돈해피(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2 15 몬스터 탐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액션캠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설마를 할때(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2021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 개막식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빨강 구두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UHD 환경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기수(재)	00 놀면 뭐하니? 스페셜	00 맛남의 광장
[10]	00 기후위기 특별기획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30 광주MBC 다큐플러스 핑크피쉬	30 당신이 흑하는 사이 2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20 살리하는 남자들(재)	30 살리하는 세상 스페셜	
[12]	10 2020 도쿄 패럴림픽 하이라이트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0 구해줘! 속소 스페셜	0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 EBS1

- 05:00 왕초보 영어
- 05:50 한국기행
- 06:10 세계테마기행
- 07:00 로보카 폴리
- 07:15 두디다쿵
- 07:30 뽀롱뽀롱 뽀로로
-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 08:00 딩동댕 유치원
- 08:30 한글용사 아이야
- 08:45 꼬마버스 타요
- 09:00 시공
- 09:15 봉구야 말해줘3
- 09:30 통통가족
- 09:40 우리집 유치원
- 10:30 한국기행(재)
- 10:50 최고의 요리비결
- 11:20 세계테마기행
- 12:00 EBS 글로벌 뉴스
- 12:10 EBS 부모
-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 14:10 명의
- 15:05 지식채널e
- 15:25 클래식e
-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 16:00 페파 피그
-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 16:30 딩동댕 유치원(재)
- 16:50 내 친구 문덕이
- 17:00 EBS 뉴스
-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일 (음 7월 26일 癸丑) ☎ 010-9790-8237

**子**  
36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우연히 협조자가 나타나서 물꼬를 트는 형상이다. 48년생 결과 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60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2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에까지 수월할 것이다. 84년생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든다. 96년생 시선을 먼 데로 돌려 보아라. 행운의 숫자 : 28, 63

**丑**  
37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라. 49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확실히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61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73년생 재료가 좋아야 결과물 또한 훌륭한 법이다. 85년생 경쟁력과 운을 맺는 것이 합리적이다. 97년생 맹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60

**寅**  
38년생 잠시 중단한 후에 면밀하게 판단할 일임을 분명히 알라. 50년생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향에 따른 차이가 크다. 62년생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방심하기 쉬운 법이다. 86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98년생 일상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16, 89

**卯**  
39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할 판세이다. 51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하라. 63년생 마음을 비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75년생 작용력의 여파를 간과한다면 불리해진다. 87년생 자기 확신에만 치우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99년생 일시적인 현상과 빛깔에 현혹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4, 60

**辰**  
40년생 천 냥 빛도 말 한 마디로 값을 수 있다. 52년생 고생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64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76년생 여파가 상당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나서라. 88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몸을 낮춰 지혜를 구하라. 00년생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형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39, 94

**巳**  
41년생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53년생 충동적이라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65년생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7년생 망설이지 말고 대법할 필요가 있다. 89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무방하다. 01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06, 59

42년생 처음으로 대하는 이나 기회와의 인연이 기대 된다. 54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단계이다. 66년생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서 대사를 도모하는 형상이다. 78년생 서로 일러 마음으로 이해야 무탈하다. 90년생 가벼이 여긴다면 그 속에 숨은 진가를 쉽게 놓칠 수도 있음을 알라. 02년생 미리서 철저히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71

43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결단은 바람직하다. 55년생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즐기는 양상이다. 67년생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79년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국면이 놓인다. 91년생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03년생 집착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0, 82

32년생 만사를 차치하고 과감 하자. 44년생 속도보다 완성도가 요구되는 판도이다. 56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접하는 기쁨이 있다. 68년생 생소한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80년생 잘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을 안게 된다. 92년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4, 72

33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45년생 여러 가지 함께 세심히 살펴보아야 불패하지 않는다. 57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유지할 수 있다. 69년생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81년생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그 뜻을 분명히 하라. 93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행운의 숫자 : 04, 68

34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46년생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58년생 공들인 노력에 정비례해서 얻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70년생 시적이 반이 될 것이니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82년생 피하거나 보류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94년생 순조로움을 더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66

35년생 분명히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47년생 체계와 절차에 따를지 제1 중요하다. 59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피하는 것이 옳다. 71년생 좋은 마무리는 큰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83년생 반드시 준비 하여야만 국면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95년생 금권에 휘둘릴 수도 있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2, 96